

파라미타 회원 2% 감소 비구(니)↑ 사미(니)↓

조계종 '2005년 통계자료' 발표, 사찰 2368개 시설사업 1년새 156개 늘어... 일부 데이터 오류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계종 총무원이 발표한 '2005년도 종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하 파라미타) 분회는 276개로, 2004년 306개 보다 30개(13.0%) 감소했다. 지회 또한 21개에서 17개로 4개(19.8%)가 줄어들었다.

특히 학생 회원이 1만4068명에서 1만3775명으로 293명(2.1%) 줄어 들었다. 지도자 회원 또한 471명에서 431명으로 40명(8.5%)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학생 회원이 1200명에서 360명으로 840명 감소했고, 분회도 17개에서 12개로 5개, 지도자 회원도 25명에서 19명으로 6명 줄어들었다.

부산광역시도 학생 회원이 2430명에서 2100명으로 330명 감소했고, 경상남도 또한 360명에서 212명으로 148명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분회가 각각 4개와 3개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경상북도는 450명에서 1365명으로 915명 증가했다. 경상북도는 1년 동안 지회가 3개 늘었다.

이와 관련 파라미타는 "사찰분회와 고등학교 분회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찰분회 감소는 전국 사찰에서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고, 고등학교 분회 감소는 임시위원의 교육체계 속에서 고등학생들이 수행활동 및 청소년단체 활동에 제약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통계자료에서는 또 조계종 소속 사찰과 스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 조계종 전체사찰은 2368개로, 2004년보다 169개(7.7%) 증가했다. 증가분 중 공찰은 13개(1.5%), 사설사찰은 156개(11.7%)에 따라 전체사찰 중 공찰은 883개, 사설사찰은 1485개로 사설사찰이 차지하는 비율은 1년 동안 2% 증가한 62%로 조사됐다.

조계종 스님은 1만3035명(비구 4953명, 비구니 4885명, 사미 1862명, 사미니 1335명)으로 1년 동안 361명(2.9%) 증가했다. 이중 비구와 비구니는 각각 222명(4.7%), 212명(4.5%) 증가했지만, 예비스님인 사미와 사미니는 10명(0.5%), 63명(4.5%)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통계자료가 지난해와 조사하는 '시점'과 '기준'이 달라 자료의 '통일성'과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6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파라미타 학생 회원은 1년 동안 18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라미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자료는 기준이 다른 데이터에 의한 비교"라며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 전체 사찰수도 21일 발표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은 2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전체 사찰 수에는 직할포교소, 대각회, 선학원 소속 사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들을 제외한 수치를 다시 발표했다.

한편 조계종은 통계내용을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공개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국회 17대 하반기 문광위 '불자 3명' 윤원호 이광재 이계진 의원, 16대엔 '전무'

하반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열린우리당 불자회 '이타회' 회장 윤원호 의원 등이 배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17대 하반기 국회에서 불교 등 종교관련 입법활동을 책임지게 된다. 국회는 6월 22일 17개 상임위와 5개의 (상임)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문광위 위원장에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을 선출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이용희(정각회 회장) 민주당 노회찬 의원은 법제사법위에, 열린우리당 최재성 정병주 의원 등은 교육위를 맡았다.

소속으로 김충환 김학원 박진숙 박형준 이계진 이재웅 장윤석 정병국 정종복 최구식 의원 등 10명, 비교섭단체로 민주당 손봉승,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2명이 포함돼, 정원 총 24명이 모두 배정됐다. 이에 따라 문광위 소속 불자의원은 윤원호 이광재 이계진 의원 등 3명, 지난 16대 하반기 문광위 상임위에는 불자 의원이 한명도 없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이용희(정각회 회장) 민주당 노회찬 의원은 법제사법위에, 열린우리당 최재성 정병주 의원 등은 교육위를 맡았다.

불교문화사업단장 현고 스님 사퇴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은 6월 23일 오전 열린 총무원회에서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장 현고 스님의 사표를 수리했다.

현고 스님은 최근 불교문화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잡음이 일면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호법부장도진 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호법부 감사국 기획실 총무부 등과 합동으로 구성해 이날부터 불교문화사업단 운영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한편, 모 인터넷 언론이 하루 전인 22일 "현고 스님이 불교문화사업단의 팀플스케이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고 스님은 "보도된 의혹들은 소설에 가깝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현고 스님은 "할 말은 많지만 현재 종단이 정부에 불교문화지원을 위한 대형사업을 요구해 놓은 민감한 상황이라,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종단을 위해 바람직한 생각에 사표를 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종단 내 감사기관이 조사국의 감사내용을 바탕으로 엄정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중형중벌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포교·국제활동 날개 되자" 조계종 제3기 국제교류위원회 출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가운데) 스님이 위촉식 후 제3기 국제교류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이치란, 지원(위원장) 스님, 조영록, 보광 스님, 이명래, 이동호 위원.

조계종 제3기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 지관·사회부장)가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6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무실에서 진행된(한국종교연합선교기구 대표·미주 및 종교연대), 보광(동국대 불교대학원장·일본), 정범(조계종 총무국장·미주) 스님, 조영록(동국대 명예교수·중국), 이치란(세계불교문화원장·아시아), 이명래(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몽고 및 중앙아시아), 이동호(발틱 연구소장·유럽)씨를 제3기 국제교류위원회에 위촉했다.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당연직 위원.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해외 각지에 연고자 깊은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종단으로서 날개가 달린 격"이라며 "앞으로 해외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당부했다.

지관 스님은 또 "국제부 신실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기 위원들은 2차례의 회의 거쳐 종단의 국제정책을 자문했으며, 2004년 12월 국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 지관 스님 예방



김태호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6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호 당선자는 "지난 선거에서 불교계에서 많은 도움을 줬던 인사라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심부름과 꾸밈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워낙 일을 잘 해 책임이 된 것"이라며 "도움 될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 동선, 재무부장 정만, 호법부장 도진, 사서실장 심경 스님 등이 배석했다.

■세계종교지도자대회 무엇을 남겼나?

전문성 부재 짧은 준비기간 성과 불구 '구설수' 분분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가 6월 8일 개막해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폐막했다. 전 세계 18개국 8대 종교단체 35명의 지도자들과 국내 종교지도자들이 조계사 불국사 등 사찰과 천주교 원불교 등의 종교시설을 둘러보고 종교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조만간 화보집도 나올 예정이다.

행사 후 준비위원장 연기영 교수(동국대 법대)는 "4차에 걸친 회의 후 격년으로 세계종교지도자대회를 열지는데 참가 지도자들이 합의했다"며 "앞으로 '서울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면을 통해 동시자막을 하기로 했던 것도 불발되면서 참가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말진치 속에 방치됐다.

세계종교지도자대회의 주요 행사로 꼽히는 학술대회는 '출속' 비난을 면키 어려웠다. 세계종교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일부 지도자가 오전에 학술대회로 오후에는 지도자대회로 오락가락 하면서 양분되는 틈에 학술대회는 발표자들의 잔치에 그쳤다. 홍보부족으로 관람객도 텅 빈 채 진행됐다.

후원금으로 이뤄진 예산 규모에는 뒷말이 많았다. 검증이 더 필요한 특정종교로부터 대회 총예산의 1/3을 지원받았다는 점 때문이다.

준비위원장 연기영 교수가 밝힌 총 예산은 9억원. 연교수는 20일 기자들에게 "서울시에서 5억 원, 강원도 인제군에서 1억원, 대순진리회에서 3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해사상실천연합회의 후원금 3억5천만 원은 "시드머니(seed money, 종자돈)여서 도로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밝혀 제외됐다.

개·폐막식을 통해 3000여명의 신도를 동원하고, 3억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대순진리회의 자리가 컸던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 요인이다.

더구나 중국동부부, 여주분부로 나뉘어 정통성을 두고 재판 중인 대순진리회의 특정본부 쪽에서 후원금을 받아 내부싸움에 관여했다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2006세계종교지도자대회는 뒷말을 무성하게 날리며 마무리됐다. 앞으로 격년제 '서울포럼'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대회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들이 해결돼야 할 것이다.

불교 천주교 등 각 종단 차원이 아닌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이 후원 협찬한데 반해 대순진리회는 단독으로 후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행사 주관인 준비위원회를 비롯해 세계종교문화연구원, 아시아태평양종교수불자연합회는 회장 및 대표가 모두 연기영 교수다. 독자적인 운영을 했다는 시선을 받는 이유다.

매끄럽지 못한 대회 운영도 지적대상. 외국 종교지도자들이 축하 메시지를 발표할 때 동시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대형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일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연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僧正 萬奉堂 致虎大宗師 四十九日 靈山大齋

- 眞骨舍利 親見 및 遺作(佛畫·幀畫) 展示會 -

時下 初夏之際에 諸方의 高僧大德 스님의 法體清安과 太古宗徒 및 佛子 여러분의 健勝하심을 三寶前에 기원드립니다.

韓國佛教太古宗의 僧正이시며 大韓民國 重要無形文化財 第48號 丹青 技能保有者이셨던 萬奉 큰스님께서 圓寂에 드신 지 四十九日이 되어 靈山齋保存道場인 奉元寺에서는 佛教傳統儀式인 靈山齋로 다음과 같이 四十九日 靈山大齋를 奉行하며 萬奉 큰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眞骨舍利 親見法會와 遺作(佛畫·幀畫) 展示會도 함께 奉行할 예정이오니 宗團 元老大德스님과 宗徒 四部大衆께서는 무루 참석해주시기를 仰望하나이다.

● 日時 : 佛紀 2550年 7月 4日(陰 6月 9日) 火曜日 午前 10時 ~ 午後 7時

● 場所 : 韓國佛教太古宗 奉元寺 道場
(雨天時 靈山齋는 三千佛殿에서, 眞骨舍利 親見 및 遺作 展示會는 說法殿에서 奉行합니다.)

● 問議 : 奉元寺 宗務所 (☎ 02-392-3007~8)

佛紀 2550年 6月 日

韓國佛教 太古宗 三角山 奉元寺

重要無形文化財 第50號 靈山齋保存會 總裁 金九海 · 萬奉佛畫傳承會長 崔福淑

住持 曹幻宇 合掌

△ 만봉큰스님 생전 모습